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주일
제33권 4호(다혜) 2012.12.23

[묵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마지막 흰 초마저 밝혔는데…….

기다림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다짐하며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건만
나는 여전히 짙은 보랏빛의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않은지.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과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기에
자신의 나약함,
그래서 연민의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이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서로서로 보듬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택하신 곳처럼
내 안에 있는 축축하고 움츠리고
냄새나는 곳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은 나의 고통과 죄를
당신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진정한 치유를 통해 자유를 주시려 오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마지막 초마저 밝힌 이 마당에.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주정에 & 김재철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심찬유 마리아,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이정희, 한창수 시몬,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풍길 바오로, 박수권 스테파노 & 권순남 마리아, 김만성, 김종환 야고보, 하현일 요셉 & 노향애 안나, 낙태아들
	(생)이윤조 클라라, 이명렬 라파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윤화경 반오로 & 윤경옥 실비아 가정, 정재호 스테파노, 이경수 헬레나 & 이정현 가정, 정현주 가브리엘라, 고정민, 정학순 발바라,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이승훈 미카엘, 강순복 요세피나 가정 사무실 봉사자들과 그가족, 오마우라 수녀, 이장환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미카 예언서 (Micah) 5,1-4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펼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이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 (Hebrews) 10,5-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루카 (Luke)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임마누엘	130	129
봉헌	나를 받으옵소서	257	257
성체	나의 영혼이 잠잠히	284	280
파견	130	124	13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교리 교육의 성서적 차원

74).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대한 루카의 기술은(루카 24,13-35 참조) 어떤 의미에서, 당신 자신 안에서 그 성경의 성취를 보여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해주실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루카 24,27-28 참조) 교리 교육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실패보다도 강한 희망이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확신에 차 있고 신빙성 있는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 총지침」에는 성경으로 감도된 교리 교육을 위한 소중한 지침들이 들어 있고, 이를 참조할 것을 기꺼이 권고합니다. 이차리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교리 교육이 “성경과 복음서들의 본문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성경과 복음서들의 사상과 정신과 안목으로써 주입되고 고취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신자들이 지성과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더구나 이천년에 걸친 교회의 숙고와 삶으로 감도될 때 “교리 교육이 풍부하고 효력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 그리고 유명한 구절들을 알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신비들을 특별히 잘 말해 주는 일부 단락들을 적절하게 암기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교리 교육 활동은 언제나 신앙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에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들어나 셧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도 살아 계시듯이(마태 18,20 참조) 그 말씀들이 살아 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교리 교육은 구원의 역사와 교회 신앙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모든 신자가 자신의 삶도 그 역사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리 교육 총지침」에서 말하듯이 성경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살아있는 교회 전통의 중요한 현대적 표현이며 신앙의 가르침을 위한 확실한 규범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각각 그 고유한 방법과 특별한 권위에 따라, 오늘날 교회의 교리 교육에 자양분을 주도록 요청받고 있다.”

<◆계속>

겸손의 삶, 믿음의 삶

유럽 교회에서 대림 시기에 기억되는 대표적 인물은 마르티노 성인입니다. 9백 년경까지 유럽의 대림절은 마르티노 성인의 축일인 11월 11일 다음 날부터 시작됐을 정도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르티노는 거의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며 성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 자기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 하나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거지에게 준 반쪽 망토를 입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마르티노는 세례를 받고 수도원을 세워 수도생활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자선행위가 바로 대림의 정신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늘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의 영성에 감화를 받아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또 그는 임종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아직 주님 백성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계속 일하는 것을 거절치않겠습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마르티노 성인의 겸손한 모습은 죽음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늘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지 여섯 달 된 몸이었었는데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2-45)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 겸손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마리아야말로 신앙인의 귀감이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권순길 세실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마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2반

◆ 백삼위본당 구역/제단체 송년행사
한해를 보내면서 전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
습니다. 제단체들과 구역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환에 마지막 흰색 촛불을 밝혔습니다. 흰색에는 기쁨, 환희, 희망, 순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니, 우리는 아할 것이 없습니다.

-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24일(월)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 낮미사 : 25일(화) 오전 11시
학생미사는 따로 없습니다.
- ◆ 송년미사 겸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31일(월) 밤 11시 30분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3년 1월 1일(화)
오전 11시

- 일시 : 오늘 주일(23일) 낮11시 미사후 성전
- 성전전례에 참여하는 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

- 2013년 백삼위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 켈런더 주제 : ①성경속의 산, 강, 바다 그리고 호수 등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더욱 느끼게 되는 현존의 자리 ‘하늘 가까이’ ②비잔틴 모자이크 이콘으로 엮은 구세사 ‘믿음과 구원의 여정’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앙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수들께 감사드립니다.

- 휴강일 : 12월 27일, 1월 3일
- 개강 : 1월 10일(목) 오후 8시

● 익명의 교우께서 성전내 의자에 까는 1인용 바이닐 방석을 260개 기증해주셨습니다. 폭신하고 보온이 되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헌내역 : 2012년 주일미사 전후 본당 안나회가 봉사한 불우이웃과 장애인 돕기 동전모으기 바구니에 총 \$2,177.62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본당 빈첸시오 회와 LA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예수회, 그리고 LA대교구는 퇴수도자 기금에 나누어 각각 전달됩니다.

- 24일 성탄대축일 밤미사후 : 호박죽
- 25일 성탄대축일 낮미사후 : 떡, 계피차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 상부(성모님) 콜팅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12월23일(주일) : P.V. 3반/4반(닭개장 \$3)
- 12월30일(주일) : 토러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12월 23일/30일 주일학교 방학으로 간식 없습니다.

교무금	강인모 김박기 신순철 오수인 이명자 이인석 임한나 조혜정	강미순 김재영 박선희 안민수 오신재 이미경 이재용 전시웅 차정애	순영 김찬자 박순만 안재만 원건희 이상규 이재철 정규숙 최기호	고천용 김찬자 박순만 안재만 원건희 이상규 이재철 정규숙 최기호	김병태 노천수 박완철 안태갑 유근태 이우성 이종선 정병훈 최상만	김병학 모은기 박주현 양영관 유선식 이용무 이현주 정상문 최원석	김영길 박근식 반비오 엄세종 유영균 이인두 이효세 정훈모 홍석인	강인모 김관구 반비오 엄세종 이상규 이효세 최기호	강미순 노천수 신순철 오수인 이우성 임한나 최상만	고천용 모은기 안민수 원건희 이용무 정규숙 최원석	김병학 박선희 안재만 유선식 이인석 정상문 홍석인	김영길 박완철 안태갑 유영균 이일길 정훈모	김용 박주현 양영관 이명자 이현주 조혜정	합계 : \$5,235
	미사헌금 : \$3,004								합계 : \$4,065					
감사헌금 : 안연숙 박이레네 라인댄스반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 주일(23일), 12월30일 두주일 학교수업을 휴강합니다.
- 오전 9시30분 주일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한인가톨릭 청소년신앙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3년 1월5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출발 : 1월5일 오전 7시에 성당에서 카풀 이용
- 장소 : 가든그로브 수정교회(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예정지)
- 대상 : 8학년~12학년
- 신청마감 : 오늘주일(23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주관 : FIAT재단, KCRM

◆ 주일학교 견진교리를 위한 Lock-in 행사

- 일시 : 2013년 1월5일(토)~6일(주일)
청소년 신앙대회 후 견진교리공부의 일환으로 백삼위 본당에서 Lock-in 행사가 있습니다.
- 대상 : 9학년 기초반, 10학년 견진반
- 준비물 : 슬리핑백, 두꺼운옷, 성경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사 ☎(310)744-5878

◆ 2012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마감하여 주십시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2년) 조화가 가능합니다.

◆ 후보 광고에 협찬해주시는 스폰서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후보에 게재되는 교우업소를 애용합시다!

남가주 소식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케냐 6온스 \$10,
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20,
블루마운틴+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50)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쉼터조성, 사랑나눔실천, 성전건립 기금
- 문의 : 이나시오 카페 ☎(323)731-4433

◆ 사우스베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토런스 사우스 하이스쿨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마태오 213-675-0498 12/7(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8(토) 오후 6시 그랜드윌드부페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9(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홍광선 요셉 991-8556 12/29(토) 오후 5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2/4(화) 10:30 am 반미사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12/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진희 한나 634-6923 12/6(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2/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삼마오로 895-8624 12/9(주일) 오후 7시 토요일시
	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서창호 마오로 968-1344 12/28(금) 오후 7시
이정자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아그네스			
P. V.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4(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2/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12/1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임엘렌 617-3568 1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를살롱 고해소

지난달, 피정 후 동료 사제가 부임한 성당을 방문했는데 교우들과 식사를 마치고 동료 사제는 어디 좀 갈 곳이 있는데 함께 가 줄 수 없겠느냐며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그냥 본당 일이면 혼자 다녀와도 될 텐데 생각하면서 무슨 일일까 궁금한 나머지 신부들 3명이 함께 따라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술집이었다. 그것도 그냥 술집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이었다.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조명과 깜빡거리는 네온사인 눈이 들어왔다. '아니, 이런 곳에서 뭘 하자는 것인지'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동안 아가씨들이 들어와 앉았다. 서먹한 분위기속에 술잔이 몇 순배 돌았다.

사실은 그랬다. 이곳은 한국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술집인데, 이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큰 언니와 동생 2명이 교우였다.

그리고 큰 언니의 부탁으로 제발 신부님들이 오셔서 동생들 냉담 좀 풀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언니 눈에 타국에까지 와서 영망진창으로 망가져 가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기가 꽤 안쓰러웠던 모양이었다.

그동안 큰 언니는 비록 술집에서 일하지만 주일미사만큼은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단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토요일 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졸음을 참아가며 아침 미사에 참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때마침 본당에 한국인 동료 신부님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부탁을 해온 것이다.

지하에서 펌프로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고, 짙은 배수관을 뚫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녹이는 강한 산이 필요하다. 냉담을 풀게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마중물과 산이 필요했다. 이에 신부들의 센스가 빛났다. 먼저 부모와 가족,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고향, 예수님 마음으로 이들을 초대했다.

이윽고, 이들은 눈물을 글썽거렸고, 그 마음은 자연스레 고해성사로 이어졌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들의 고해가 끝난 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형제가 와서 자신도 냉담 중이라고 했다. 과거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부도나고 도망을 오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 형제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화해하고 돌아갔다. 15년 만이었던단다.

곧 대림이 끝난다. 예수님은 구만리 하늘을 쪼개고 우

리 죄인을 구하러 한달음에 오시는 당신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히로시마 선교

☞ 부활때나 대림시기에 판공성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막상 뭘 고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기억나는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성사를 보아야합니까?

우리 신자 중에 많은 사람이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다지 고백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대부분의 죄 고백은 주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주일의 의무는 주일미사에 참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말로 "성당 다니다"는 말을 씁니다.

성당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이 충실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아이들이 "성당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생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살았는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삶을 긍정하며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마음을 쓰며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희망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 삶의 전반을 두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잠시 멈추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긴 계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는 것 보다, '내가 원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머무름

하느님은 스스로 미천해지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실 수 있으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만큼

강력하신 분입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